

보도시점 2024. 4. 16.(화) 01:00 배포 2024. 4. 15.(월) 12:00

최 부총리,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춘계회의 및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 위해 출국

- 글로벌 경제질서 안정을 위한 한·미·일 경제·금융 협력 강화(한미일 재무장관 회의)
-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및 국제금융체제 개혁 강조(주요 20개국)
- 세계은행 발전방안 이행을 위한 자원 다양성 확충 제언(세계은행 개발위원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4.17(수)~4.19(금),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①한·미·일 재무장관회의, ②주요 20개국(이하 G20) 재무장관회의, ③세계은행(이하 WB) 개발위원회 회의 참석 등을 위해 4.16(화) 출국한다.

첫째 날인 4.17(수), 최 부총리는 작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개최하는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지원회의(round table)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9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약한 23억불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패키지 후속 조치를 밝힐 계획이다.

이어서, G20 재무장관회의(세션①)에서는 탄소중립과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제언할 예정이다. 이튿날인 4.18(목), G20 재무장관회의(세션②)에서는 선도 발언을 통해 새로운 국제금융환경에 대응한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개혁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금융체제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4.19(금), 최 부총리는 WB 개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지난해 10월 마라케시에서 WB 주도로 마련된 WB 발전방안(WB Evolution)의 이행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참석을 계기로 최 부총리는 일본·우크라이나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4.16(화)에는 스즈키 쉐이치(Suzuki Shunichi) 일본 재무장관을 만나 한일 재무당국간 협력을 논의하는 한편, 4.19(금)에는 세르히 마르첸코(Sergii Marchenko)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을 만나 우크라이나 중장기 패키지 지원의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한-우크라이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최 부총리는 세계은행(WB)·국제개발은행(IDB) 등 국제금융기구 총재와 양자 면담을 가질 예정이며, 19(금)에는 IMF 총재와 만나 한국의 빈곤감축성장기금(PRGT*) 출연을 위한 서명식을 진행한다.

*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Trust, 저소득국 빈곤완화 및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양허적 조건으로 지원하기 위한 IMF의 기금('24~'27년 총 4,140만SDR 납입예정)

같은 날, 최 부총리는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amp;푸어스(S&P)의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Roberto Sifon-Arevalo)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만나 '24년 한국의 경제상황과 정책방향 등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견고한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G20 회의>	국제금융국 다자금융과	책임자	과 장	강희민 (044-215-4810)
		담당자	사무관	변재만 (044-215-4814)
<한미일 회의>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	책임자	과 장	곽소희 (044-215-4830)
		담당자	사무관	권용준 (044-215-4832)
<IMF PRGT>	국제금융국 국제통화팀	책임자	팀 장	고영욱 (044-215-4840)
		담당자	사무관	류성열 (044-215-4841)
<S&P 면담>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책임자	과 장	유창연 (044-215-4710)
		담당자	사무관	신정원 (044-215-4715)
<WB 개발위>	개발금융국 개발금융총괄과	책임자	과 장	장의순 (044-215-8710)
<양자 면담>		담당자	사무관	전종현 (044-215-8712)
<우크라이나>				안광선 (044-215-8713)
				김요한 (044-215-8714)

